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저'...신선식품 폭등세 '여전'

호남통계청 '6월 물가동향'

작년 7월이후 상승률 가장 낮아 생활물가 광주·전남 2.9%·3.2% ↑ 생산·채소·과일 가격은 '고공행진'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물가상승률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생산·채소·과일 등 서민 가격에 밀접한 신선식품 가격은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38

(2020년=100)로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했다. 전남지역은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또 지난해 7월 광주 2.3%, 전남 1.8%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광주 농축수산물물은 전월대비 2.9% 하락, 전년동월대비 6.8% 상승했고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했다. 서비스 품목은 전월대비 0.0% 보합, 전년동월대비 2.6% 올랐다.

전남 농축수산물물은 전월대비 2.4% 하락, 전년동월대비 6.4% 상승했고 공업제

품은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다. 서비스 품목은 전월대비 0.0% 보합, 전년동월대비 2.3% 올랐다.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하락세다.

광주지역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2.9% 상승, 전월 3.3%보다 0.4%p 떨어지며 올해 들어 전년동월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생활물가 주요 등락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상승' 품목은 사과(56.4), 택시료(18.3), 보험서비스료(15.1) 등이고 '하락' 품목은 닭고기(20.3), 라면(6.5) 등이다.

전남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3.2% 올라 전월 3.5%보다 0.3%p 하락했다. 전남 역시 전년동월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신선식품지수는 양 지역 모두 전년동월비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과일(사과, 배)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다.

광주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4% 하락, 전년동월대비 10.3% 상승했다. 신선어개류는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12.7%, 전년동월대비 4.8% 각각 하락했다. 신선과실류는 전월대비 5.6% 하락했지만 전년동월대비 28.6% 큰 폭으로

올랐다. 전년동월대비 신선식품 주요 등락 품목은 사과(56.4%), 배(175.1%) 등이다. 과일류 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는 이상기후, 작황부진 등이 꼽힌다.

전남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5.1% 하락, 전년동월대비 10.0% 상승했다. 신선어개류는 전월대비 1.1% 상승, 전년동월대비 3.4% 하락했고 신선채소류는 전월대비 13.0%, 전년동월대비 1.7% 각각 하락했다. 신선과실류는 전월대비 3.5% 하락했지만 전년동월대비 34.3% 급등했다. 전남 역시 사과(68.7%)와 배(130.9%)가 주요 등락 품목으로 꼽혔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신세계, '테니스룩' 연출해 보세요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신세계는 테니스룩을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패션아이템을 선보인다. 본관 7층과 4층에 입점돼있는 라코스테는 악어모양의 로고가 상징이며 프랑스 테니스 선수가 런칭한 브랜드로 유명하다. 또 신관 지하 1층에 자리 잡은 디아도라에서는 테니스 라켓 등으로 디자인된 테니스 의류 및 가방 등 다양한 아이템을 만나 볼 수 있다.

취미로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테니스웨어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테니스룩을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패션아이템을 선보인다. 본관 7층과 4층에 입점돼있는 라코스테는 악어모양의 로고가 상징이며 프랑스 테니스 선수가 런칭한 브랜드로 유명하다. 또 신관 지하 1층에 자리 잡은 디아도라에서는 테니스 라켓 등으로 디자인된 테니스 의류 및 가방 등 다양한 아이템을 만나 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롯데마트, '덕화명란' 명란젓 신상품 3종 선보

롯데마트가 명란 명가 '덕화명란' 과 손잡고 명란젓 신상품 3종을 선보인다.

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명란은 밥반찬이나 술안주로 즐기기에 좋고 요리의 재료로도 활용도가 높아 고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지난해 명란 매출은 2022년과 비교해 40%가량 늘었으며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누적 매출 역시 전년 동기대비 40%가량 상승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국내 명란 제조 명가 '덕화명란' 과 손잡고 명란 신상품 3종을 출시했다. 덕화명란은 수산 제조 분야에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국가 공인 명장과 명인 지정 브랜드로, 명란만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다.

이번에 출시한 신상품 3종은 1인 가구에 맞춤형으로 소용량으로 기획한 '나혼자 명란(60g/냉장)'을 비롯해 마늘의 깊은 맛을 더한 '덕화갈릭맛 명란(100g/냉장)', 스모크 향을 입혀 명란의 풍미를 극대화한 '덕화 스모크향 명란(100g/냉장)'이다.

해당 상품들은 차별화된 맛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재료 콘셉트를 더한 것이 특징



롯데마트가 국내 명란 제조 명가 '덕화명란' 과 손잡고 명란젓 신상품 3종을 선보인다.

롯데마트 제공

이다. 일반적인 명란젓과 비교해 염도가 낮은 4%대 상품으로, 색소와 보존료는 물론 발색제까지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산물을 의미하는 MSC(해양관리협회) 인증까지 획득한 상품이다.

롯데마트는 오는 10일까지 '나혼자 명란'은 3000원대에, '갈릭맛 명란', '스모크향 명란'은 각 6000원대에 오프라인 채널 단독으로 판매한다.

나다운 기자

광주은행, 수도권 기업금융 강화...특화센터 4곳 개점

기업금융 중심 중·대형화 추진 권역별 특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광주은행이 수도권 영업점 재배치를 통해 기업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광주은행은 지난 1일 수도권 영업 기반 및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 영업점을 통합·이전해 기업금융 특화센터 4곳을 신규 개점했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내 영업점 재배치 및 기업금융 중심의 중·대형화 추진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서울 3곳(잠실·삼성·성수 금융센터), 경기 1곳(판교 금융센터)에 기업금융 특화센터를 개점했으며, 권역별 특성에 맞춘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업금융 특화센터에는 타금융기관 출신 RM지점장을 포함해 다년간 여수신 업무를 수행한 기업금융 전문가를 배치했으며, 고객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금융 니즈를 파악하고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고병일 광주은행장(오른쪽 네 번째)이 지난 1일 광주은행 서울 삼성금융센터 개점을 축하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제공해 고객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센터 내부의 모습을 기존의 획일적인 직선형 창구가 아닌 곡선형 창구로 설계해 자유로우면서도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통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최권범 기자

삼성전자, 스포츠 광풍에 초대형 TV 매출 '쑥'

75형 이상 전년비 40% 이상 증가

다가오는 파리올림픽, 인기몰이 중인 KBO리그 등 집에서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하려는 소비자가 늘며 고화질 초대형 프리미엄 TV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2일 삼성전자는 올해 판매한 75형 이상의 초대형 프리미엄 AI TV 신제품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75형 이상 삼성 OLED는 전작 대비 동기간 판매량이 약 3배로 증가하며 OLED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초대형 프리미엄 TV 라인업에는 올해부터 강화된 AI 기능을 통한 화질 업스케일링, 사운드 최적화 등 차별화된 시청 경험과 AI를 통한 에너지 절약 모드가 탑재돼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024년형 Neo QLED 8K는 전년 대비 8배 많은 512개 뉴럴 네트워크와 2배 빠른 NPU(Neural Processing Unit)로 역대 삼성 TV 프로세서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3세대 AI 8K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고도화된 AI 프로세서에 기반한 '8K AI 업스케일링 Pro'는 콘텐츠를 즉각적으

로 분석하고 업스케일링 해 저해상도 영상도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해 준다. 'AI 모션 강화 Pro'는 스포츠 종목의 자동 감지해 공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보정한다.

사운드 기술에도 AI가 적용돼 더욱 진화했다. '액티브 보이스 Pro'는 콘텐츠마다 다른 음량 차이를 감지하고 목소리를 분리, 증폭해 대화 내용이 배경음이나 외부 소음에 묻히지 않고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돕는다.

또 스마트싱스의 AI 절약 모드로 에너지 사용량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AI 절약 모드를 활성화하면 TV가 주변의 빛을 감지하거나 재생하는 콘텐츠를 장면별로 분석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박소영 기자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판로 확대"

이병필 중진공 전남본부장 취임

이병필(사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장이 지난 1일 취임했다.

이 본부장은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 1996년 중진공에 입사해 인력지원처 일자리기획팀장, 전북 서부지부장, 전남동부지부장 등 주요 부서와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 본부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남 지역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혁신성장,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전남도는 시·군·구 22곳 중 80%가 넘는 18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인력난 해소 등의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별 맞춤형 지원, 수출·판로 확대, 장기직 유도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